

인터넷총국 (홈페이지 http://data.rutc.com)	
후원: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분류	구역공과-2017년 13과
제목	전도의 증인- 요셉의 인생 스토리
성경	창세기 37:1-11
일시/장소	2017년 3월 26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1)영원한 언약 - 복음(예수 그리스도, 마16:16, 히13:8)
- (2)시대적인 언약 - 세계복음화(행1:8)
- (3)나의 이면계약(평생언약)
- 2)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언약의 여정을 생각해보라.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성경말씀 (창세기 37:1-11)

- 01/ 야곱이 가나안 땅 끝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 0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 0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 0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 0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 0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는 꿈을 들으시오
- 0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 0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 0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ऊ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나라
-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꾸는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1. 요셉이 붙잡은 언약 (창37:1-11)

- 1) 창37:1-11, 세계복음화의 꿈
- 2) 창39:2-6, 21-23, 어디서든지 임마누엘 누림
- 3) 창42:9, 창45:5, 창50:19-21,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
- 4) 창50:25, 죽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을 고백

2. 요셉의 언약의 여정

- 1) 창35:18,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움을 겪었다.
- 2) 창37:1-11,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
- 3) 창37:12-36,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 4) 창39:1-6,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2-5절)
- 5) 창39:7-23,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됨(21-23절)
- 6) 창40:1-23, 감옥에서 술말은 관원장과 떡굽튼 관원장을 만나고 꿈 해석.
- 7) 창41:1-57,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38-44절)
- 8) 창42:9, 형들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했다.
- 9) 창45:1-8, 요셉은 형들을 만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5절)
- 10) 창50:19-21,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할 때도 언약을 고백하며 위로하였다.
- 11) 창50:22-26,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언약을 고백하고 110세의 나이로 죽었다.

3. 요셉에 대한 성경의 증언

- 1) 창49:22-26,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
- 2) 대성5: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 3) 히11:21-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 결론

- 1)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 서론

▶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이 일(시103:20-22)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 이 일(시103:1-21)이 벌어진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예배하는데도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와서 주일 예배드리는데 그것도 와서 좋고 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을 너희 친사여.. 그랬다. 이게 굉장한 말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룬다고 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며, 22절에 그랬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이랬다. 굉장한 메시지다.
▶ 자, 요셉의 인생 스토리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어떻게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되느냐?
1)복음 - 은혜
▶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하거나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얘기를 한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로는 좀 위험하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였다고 얘기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간증을 엉터리로 한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얼른 보면 맞는 말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생기기기도 한다. 그러나 사탄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다. 맞잖아요? 이렇게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2)함께

▶ 두 번째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러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했다. 요셉 원래 고백하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나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일등공신이였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감옥소 있을 때에도 최고의 인물이었다. 나는 애굽에서도 최고 지도자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 바로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임금을 사랑하심으로.. 참 내가 봐도 멋지다.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를 중직자가 되었으면 나이 들면서 만들어야 된다. 잘못하면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상하게 된다.

▶ 나이 들면 잘못하면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듣기 싫어한다. 손자, 손녀는 모르고 있다가 크면 듣기 싫어한다. 어릴 때는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다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하거든? 싫어한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늙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할아버지는 한 게 없는 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래야 된다. 그러면 손자, 손녀 볼 때는 할아버지 참 괜찮은 분인데 자기는 잘하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배우는 것이다. 저게 겸손이구나...

3)사명 - 선교

▶ 그의 사명은 선교임을 얘기했다. 전 세계 쌀 파는 척하면서 선교한 것이다. 일단 제가 서론에서 먼저 요셉을 요약한 것이다. 목사님들도 보면 교회도 잘 안 되고 늙은 목사들 만나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자기 자랑한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만날 때마다 한 얘기를 한 줄도 모르고 계속 한다. 그러면 친구 같으면 야, 네 전에 했지 않냐? 그럴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늘 했던 말을 한다. 그게 늙은 증거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늙지 마시고 익어가는 사람 되기 바란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늙었다와 익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다. 그래서 나는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1. 요셉이 붙잡은 언약

▶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

1)꿈 - 기도

▶ 꿈을 꾸면서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다. 꿈을 꿀 만큼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꿈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아줌마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전쟁 나는 꿈을 꾸는데 그건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들 약간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이 온다. 밖에 전쟁 났는데 보니까 전쟁이 아니고 옛날에 초인종 벨 소리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 꿈을 꾸는 걸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다. 꿈을 꿀 정도로 기도 제목이 확실했다.

2)임마누엘

▶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

와 함께 한다.

3) 언약 먼저

▶언제든지 언약을 먼저 얘기했다.

4) 가나안

▶그리고 언제든지 언약도 먼저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도 기억하고 있었다. 죽을 때도 유언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내 시체를 묻어 달라.

2. 요셉이 가진 언약의 여정(함께 - 승리)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가진 언약의 여정을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죠?

1) 외로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과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 가운데 한 단어씩만 적어보자면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굉장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

2) 언약

▶두 번째로 보시라. 이것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램넛 트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외로움 속에서 너무 외로움이란 건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외로움도 외로움 나름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머니가 없다는 게 제일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없고 이러면 괜찮은데 크다가 없어지면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 된다. 또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으면 조용하지 외로운가? 이 외로움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극한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다. 그런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3) 노예

▶언약을 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

4) 보디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다.

5) 감옥

▶여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소로 가게 된다.

6) 꿈 해석

▶감옥에서도 그렇고 왕을 만나서도 그렇고 꿈을 해석하게 된다.

7) 총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요셉의 여정을 쭉 적었다.

8) 가족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언약을 얘기했다.

9) 창50:19

▶그리고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야곱이 죽고 형들만 남았잖아요? 그 형들이 불안한 것이다. 이 총리가 어마어마한데 아버지 때는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때도 요셉이 창50:19을 고백했다. 형들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두려워 할 필요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다. 내가 어떻게 형들을 해치겠는가? 그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10) 110세

▶110세에 죽게 된다. 이때도 언약을 얘기했다. 자, 우리가 얼른 보면 요셉의 여정이 이렇게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되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다.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항상 승리한 것이다. 외로울 때도 언약 붙잡았다. 노예로 갈 때도 언약 붙잡았다. 심지어 보디발 집에 성공할 때도 언약 붙잡았다. 감옥소 가도 언약 붙잡았다. 총리가 되도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요셉의 여정이다. 감사한 일이지?

3. 요셉에 대한 성경의 증언

▶요셉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성경의 몇 개 증언이 있다. 특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다.

1) 야곱의 축복(창49:22-26)

▶그 내용들 보면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창49:22-26이다. 혹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다음 주 공과 때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너는 썸 겐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자, 이 나뭇가지가 썸 겐에 있으니 얼마나 잘 자라는가? 자라서 담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또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복과 너희에게 쫓 먹인 자와 너의 태에 복이 있을 것이다.

2) 장자의 명분

▶대상5:2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리라. 장자도 아닌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리라.

3) 히11:21-22

▶그리고 히11:21-22에 기록 되고 있다. 히11장은 믿음의 인물들 기록한 곳이잖아요? 그게 요셉을 언급하고 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묻으라고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은 뭐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셈이 벌써 훗날에 있었던 것도 붙잡고 있었다.

♣ 결론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사실은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

1) 영원 -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2)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3) 계획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요셉의 인생 스토리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시간이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몇 세 동안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으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중에 치유 되는 날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겠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고백한 그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그 스토리가 언약처럼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data.rutc.com ② http://www.jcking.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